

范仲淹의 散文 精神 研究

李承信*

<목 차>

1. 序言
2. 政治와 文學에의 改革 의지
3. 教化와 仁義의 文學觀
4. 教育과 人才育成의 강조
5. 結論

1. 序言

北宋 慶歷新政 시기는 개혁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상, 문학 등의 제 방면에 서 활발한 개혁운동을 시도한 시기이다. 당시 정치가, 문학가, 교육가, 군사가 었던 范仲淹은 각 분야의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며 개혁의 핵심 인물로서 주도 적인 세력을 이루었다. 또한 그는 강력한 정치적 변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북송 고문운동의 영수인 歐陽修를 비롯한 북송 개혁문단과 함께 고문 운동을 전개 하였다. 당시는 송대 문인 사대부들의 과거를 통한 정계 진출로 말미암아 정치 와 문학이 여느 다른 시대보다도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에 范仲淹의 정치 개혁은 북송고문운동과 맞물려 있었으며, 그의 뛰어난 정치적 입지 는 곧 북송 고문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 관련 방면에서 이루어져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왔고, 그에 비하여 문학적 성과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가 경력신정을 일으킨 정치적 인물인 점에서 문학가라기보다 정치가로서의 입지가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歐陽修가 송대 문학 개혁 운동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었던 데에는 王偶偁과 范仲淹, 石延年, 尹洙, 蘇舜欽 등의 문단 활동을 통한 교류와 창작 활동 등의 요인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范仲淹의 啓導的 역할과 다른 문인들과의 교류활동 및 그들의 정치적·문학적 사상을 고찰하는 것은 북송 고문운동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范仲淹의 문장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范仲淹 文章의 政治的 文學的 역량을 확인하고 나아가 北宋 古文運動의 주요 사상과 北宋 初 散文의 特徵을 이해하고자 한다.

2. 政治와 文學에의 改革 의지

宋 仁宗 시기 范仲淹을 영수로 한 개혁의 의지를 지닌 사대부들은 정치개혁 운동 즉 慶曆新政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의 상이한 평가가 있었고 그 영향이 지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개혁 사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경력신정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을 주도한 范仲淹의 사상을 살펴보면 중국 전통 문화 사상 중의 民本思想과 仁政思想이 주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范仲淹 등의 개혁파들이 경력신정에서 내세운 민본과 인정 사상은 송대 사회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북송의 정권은 당말 오대 약 200여 년간의 대혼란을 겪고 무력정변을 거쳐 세워졌기 때문에 농민의 봉기와는 달리 정치 통치계급의 분열과 투쟁에 대하여 심리적 두려움이 있었다. 안정된 정치를 위하여 지주계급의 지지가 필요했고 전제와 검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여 지배사회의 절대우세적인 계층을 형성하게 했다. 이로 인해 북송 정부의 중용 하에 지주계

급들이 제멋대로 농민의 토지를 겸병하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농민을 약탈하게 되었다. 아울러 집권 제도 하에 군·관·병의 폐단이 생겨나고 국가의 경제도 부실해졌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세를 늘리고 그 결과는 농민의 몰락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상당한 자연 재해까지 덮치면서 북송 중기에 농민의 기의가 빈번하였고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사회 위기 가운데 북송의 통치 집단의 식견 있는 선비들은 소농의 안정이 나라의 건재에 절실함을 인식하고 고심 끝에 상소를 올려 왕조의 통치를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范仲淹의 <上執政書>가 그 대표이다.

지금 조정에서는 오래도록 근심이 없었고 천하도 오래도록 태평하였으며, 병사들도 오래도록 쓰이지 않았고, 사인들도 오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니 나라 안팎으로는 바야흐로 사치스러운데, 백성들은 오히려 곤궁하다. 조정에 근심이 없으면 쓴 간언이 들어가기 어렵고 천하가 오래도록 화평하면 기대어 엎드려 두려워할만하다. 병사가 오래도록 쓰이지 않으면 무기가 갖추어짐이 견실하지 못하고 사인이 일찍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현능한 인재들이 충분치 못하다. 안팎으로 사치하면 나라의 씬씀이가 절도가 없고, 백성들이 곤궁하면 천하에 은혜로움이 없게 된다. 쓴 간언이 들어가기 어려우면 나랏님이 귀기울여 들음에 총명함이 없게 된다. 화복이 서로 기인되어 두려울만하면 간웅들이 혹 그 틈을 노리고 무기가 갖추어짐이 견실하지 않으면 오랑캐들이 혹 그 틈을 탄다. 현능한 인재들이 충분치 않으면 인재를 다른 데에서 빌려오게 되고 나라의 씬씀이가 절도가 없으면 백성의 힘이 다 소진된다. 천하에 은혜로움이 없으면 나라의 근본이 견고하지 않게 된다.¹⁾

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그 근본이 나라를 평안케 한다고 하는 사상에 서 출발하여 정치가의 예리한 판단으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었다. 그는 백성들의 곤궁함은 나라의 재정에 일정한 법도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며 이는 곧 천하에 은덕이 없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즉 나라의

1) 《范仲淹全集·上執政書》“今朝廷久無憂矣，天下久太平矣，兵久弗用矣，士曾未教矣，中外方奢侈矣，百姓反困窮矣，朝廷無憂，則苦言難入，天下久平，則倚伏可畏，兵久弗用，則武備不堅，士曾未教，則賢材不充，中外奢侈，則國用無度，百姓困窮，則天下無恩，苦言難入，則國聽不寤矣，倚伏可畏，則姦雄或伺其時矣，武備不堅，則戎狄或乘其隙矣，賢材不充，則名器或假於人矣，國用無度，則民力已竭矣，天下無恩，則邦本不固矣。”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왕도가 다시 행해져 부국강병이 지속되고 태평성세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이었다. 范仲淹은 개혁을 주장하며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임을 천명하고 인종의 기본적인 대민정책에 대하여 나라의 근본을 공고히 하고 백성의 역량을 두터이 하고 명기를 중용하며 오랑캐에 대비하고 간옹들의 할거를 막고 국청을 밝게 할 것을 문장을 통해 피력하였다.

그는 유가적 인의도덕의 전통사상에 기반하여 정치가의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고 善政의 기준은 仁政의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는 <答手詔條陳十事>에서 출척을 분명히 하고 요행을 제어하며 공거를 정밀히 하고 관장을 선발하며 공전을 균등히 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²⁾ 관관의 치정을 개선하여 인정사상을 체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의 골자이며 이는 곧 경력신정의 핵심이 된다.

신이 듣건대, 역대의 정치에 오래도록 폐단이 있어왔습니다. 폐단이 있어도 구하지 않고 화란이 생기는 것은 어찌서입니까? 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제도가 갈수록 쇠미해져 은혜를 베풀고 상을 주는 것에 절도가 없어서이고 세금과 부역을 거둠에 절도가 없으니, 인정이 참담하고 원망스러워 天禍가 사납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로지 堯와 舜만이 그 변화에 능히 통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피로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易》에서 말하길, 窮하면 變하고 變하면 通하고, 通하면 오래도록 이어진다 하였습니다. 이는 천하의 이치가 窮塞하면 變通의 道를 생각하고, 變通에 능하게 되면 長久한 業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五代之 亂을 바꾸고 四海의 부유함을 지닌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기강과 제도가 날로 침체되고

2) 《范仲淹全集·答手詔條陳十事》“一日明黜陟，爲重定文武百官磨勘，將以約濫進、責實效，使天下政事無不舉也。

二曰抑僥倖，爲重定文武百官奏蔭，及不得陳乞館閣職事，將以革濫賞、省冗官也。三曰精貢舉，爲天下舉人先取履行，次取藝業，將以正教化之本、育卿士之材也。四曰擇官長，爲舉轉運使提點刑獄，並州縣長吏，將以正綱紀、去疾苦、救生民也。五曰均公田，爲天下官吏不廉則曲法，曲法則害民，請更賜均給公田，既使豐足，然後可以責士大夫之廉節，庶天下政平、百姓受賜也。六曰厚農桑，爲責諸道溝河，並修江南野田，及諸路陂塘，仍行勸課之法，將以救水旱、豐稼穡、強國力也。七曰修武備，爲四方無事，京師少備，因循過日，天下可憂，請密定規制，相時而行，以衛宗社、以寧邦國也。八曰減徭役，爲天下徭役至繁，請依漢光武故事，並合縣邑，以省徭役、庶寬民力也。九曰覃恩信，爲赦書內宣布恩澤未嘗施行，並請放先朝欠負，以感天下之心也。十曰重命令，爲制書忽而行違者，請重其法，以行天子之命也。”

아래에서는 官과 막힘이 있고 백성은 외적들로 인해 곤경에 처하고 적인들은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세력을 더 펼쳐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즉 그 말류를 바로 하고자 반드시 그 근본을 실마리로 삼아야하며, 그 흐름을 맑게 하고자 반드시 그 근원을 맑게 하여야 합니다. 신이 감히 전대 제왕의 도를 약속하고 지금 祖宗의 위업을 구하고자 하니 가히 행할만한 것들을 채택하여 조목 조목 아뢰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 천하의 마음을 따르시어 이 일을 행하는 데 힘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법제가 서고 기강이 다시 멀쳐 일어나면 종사가 靈長하고 천하가 복을 누릴 것이옵니다.³⁾

范仲淹은 <답수조조진십사> 서언에서 그 말을 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단서로 해야 하고 그 류를 맑게 하려면 반드시 그 근원을 맑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렴한 정치와 공정한 관리 선발은 경력신정의 핵심사상으로, 이를 통하여 북송 왕조개국에서 인종 때까지의 통치 체제의 약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누적되는 백성의 빈곤과 문무관의 직분제도의 모순, 승진과 인재발탁 과정의 모순 등에 대하여 말하고 관료정치의 폐단을 개혁하자는 의지를 밝혔다. 范仲淹의 이러한 정치 개혁에 대한 굳은 의지는 황제의 결정에도 대담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과감함과 용기로 평가된다.

그의 정치 개혁의 의지는 문학 운동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는 당시 고문운동의 영수인 歐陽修 등과 교류하였으며, 교류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문학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상호 영향 관계를 유지하였다. 范仲淹은 당시의 駢文에 반대하고 儒家의 '道'와 '文'의 관계에 주목하여 傳道를 주장하였다. 北宋 初는 오랜 기간의 혼란을 거치고 정치적으로는 잠시 안정을 이루었던 시기로 정치는 물론 경제력의 약화, 계층 간의 갈등 등의 여러 사회 모순이 팽배하였던 시기이다. 이에 뛰어난 文才를 통해 관직에 오른 范仲淹과

3) <范仲淹全集·答手詔條陳十事>“臣聞歷代之政，久皆有弊，弊而不救，禍亂必生，何哉。綱紀寢廢，制度日削，恩賞不節，賦斂無度，人情慘怨，天禍暴起，惟堯舜能通其變，使民不倦。易曰，窮則變，變則通，通則久。此言天下之理，有所窮塞，則思變通之道。既能變通，則成長久之業。我國家革五代之亂，富有四海垂八十年，綱紀制度，日削月侵，官壅於下，民困於外，敵人驕盛，寇盜橫熾，不可不更張以救之。然則欲正其末，必端其本，欲清其流，必澄其源。臣敢約前代帝王之道，求今朝祖宗之烈，采其可行者條奏，願陛下順天下之心，力行此事，庶幾法制有立，綱紀再振，則宗社靈長，天下蒙福。”

歐陽修와 같은 정치가들이 문장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정치 개혁을 요구하였고 이는 자연스레 정치와 문학 개혁이 동일선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⁴⁾ 개혁과 반개혁의 정치적 투쟁 하에 문학 및 문화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楊億, 錢惟演, 劉筠 등을 위주로 한 晚唐의 퇴폐적이고 부미한 형식주의파와 范仲淹, 歐陽修 등을 위주로 한 진보문인파가 대치하였다. 范仲淹과 歐陽修 등은 육경을 숭상하고 육경을 모범삼기 위하여 순수한 道를 얻어야 함을 말하였다. 도가 순수하면 안에서 충만하고 실하게 되어 훌륭한 문장을 쓰게 되고 세상 일에 과감하고 견고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范仲淹은 歐陽修 등과 함께 韓愈를 추종하며 그의 고문운동을 계승·발전시켰다.

한유의 '道'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하다. 唐代 韓愈는 이른 바 '明道'의 설을 주장하고 '그 언사를 닦아 道를 밝혀야 함(修其辭以明其道)'을 주장했다. 韓愈는 <原道>에서 道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경계를 정하고 있다.

이른 바 선왕의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두루 사랑함을 仁이라 하고 행함에 마땅하게 하는 것을 義라 하였다. 이로부터 그것에 나아가는 것을 道라 하며 그것을 자기에게 충족하게 하며 밖에 기대하지 않는 것을 德이라 한다. 《詩經》, 《書經》, 《易經》, 《春秋》 등은 그 법은 禮樂과 刑政이고 그 백성은 土農工商이고 그 지위는 君臣, 父子, 師友, 昆弟, 夫婦이며 그 옷은 마와 비단이며 그 거처는 궁실이며 그 음식은 밤, 쌀, 과일, 야채, 생선, 고기이니 道가 밝아지기 쉽고 가르침을 행하기가 쉽다.……師道란 어떠한 도인가? 이것은 내가 말한 道를 말하며 이전에 노자와 불자의 道가 아니다. 堯가 이것으로 舜에게 전하고 舜이 이것으로 禹에게 전하며 禹는 이것으로 湯에게 전하며 湯은 이것으로 文王, 武王, 周公에게 전하였다. 文王, 武王, 周公은 그것을 孔子에게 전하고 孔子는 그것을 孟子에게 전하였는데, 孟子가 죽자 전해지질 못했다.⁵⁾

4) 《歐陽修全集·上范司諫書》“竊以五代以來，諸侯暴酷，視民如芥，生殺由之。皇朝龍興，典章一寬。眞宗皇帝至仁如天，盡心于此。內則舉執法之史，外則創按刑之司，徒流之間，無敢差者。若今於教化之道，復如刑名之用心，亦何患不至乎！今搢紳之間，多議按刑之司無益於外，亦思之未深耳。如得其人，糾察四方，絕斯民之冤，協先帝之志，豈無益乎？得人而已，不可謂川之既平，可壞其防也。今王刑既清，王道可行，此天下士人爲相府惜其時也。或曰，天下之事猶指諸掌，豈相府弗克行乎？亦在兩宮之意爾。謂人主在上，或喜怒生殺，或好惡邪正，則諫諍之際，爲臣不易也。若乃修四方之政教，正百司之綱紀，澄清風俗，相府之職也，豈必兩宮之意乎？”

5) 《韓昌黎文集·原道》“夫所謂先王之教者何？博愛之謂仁，行而宜之之謂義，由是而之焉之謂

여기에서 韓愈가 밝힌 道는 仁과 義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선왕의 가르침이며 구체적으로는 仁義道德과 禮樂刑政과 君臣父子간의 倫理로서 六經을 지침으로 한 儒家의 道이다. 歐陽修는 이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道와 文의 작용에 치중하여 ‘道勝’의 설을 내세워 道가 순수하여 내적으로 충실하면 문장으로 드러나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추종한 歐陽修는 <答祖擇之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세상에는 스승이 없고 학자는 반드시 경을 스승 삼아야 한다. 경을 스승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그 뜻을 구하여야 한다. 뜻이 얻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순수하게 된다. 도가 순수하면 안에서 충만한 것이 실하고 안에서 충만하여 실하면 문장으로 발하는 것은 빛이 나고 세상에 베풀어지는 것은 과감하고 견고하다.⁶⁾

여기에서 歐陽修는 육경을 숭상하고 육경을 모범삼기 위하여 순수한 道를 얻어야 함을 말하였다. 도가 순수하면 안에서 충만하고 실하게 되어 훌륭한 문장을 쓰게 되고 세상 일에 과감하고 견고하게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文보다 道를 더욱 우선으로 여기는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歐陽修는 <答吳充秀才書>에서 ‘道勝者文不難而自至’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성인의 문장은 비록 미칠 수는 없지만 대저 道가 뛰어나면 문장은 어렵지 않게 절로 지극해진다. 그러므로 맹자가 바쁜 와중에 글을 쓸 틈이 없었고 순자 역시 만년에 가서야 글을 썼다. 양자운이나 왕통 같은 이는 바야흐로 면려하여 언어를 모방하였으니 이는 道가 부족한데 억지로 말을 한 것이다.⁷⁾

道, 近乎已無待于外之謂德. 其文《詩》, 《書》, 《易》, 《春秋》, 其法禮樂刑政, 其民士農工賈, 其位君臣父子師友昆弟夫婦, 其服麻絲, 其居宮室, 其食粟米果蔬魚肉, 其爲道易明, 其爲教易行也. ……曰師道也, 何道也? 曰斯吾所謂道也, 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武周公, 文武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

6) <歐陽修全集·答祖擇之書> “夫世無師矣, 學者當師經. 師經必先求其意, 意得則心定, 心定則道純, 道純則充于中者實, 中充實則發爲文者輝光, 施于世者果毅.”

7) <歐陽修全集·答吳充秀才書> “聖人之文雖不可及, 然大抵道勝者文不難而自至也. 故孟子皇皇不暇著書, 苟卿蓋亦晚而有作. 若子雲仲淹, 方勉焉以模言語, 此道未足而強言者也.”

도가 지극하면 文도 저절로 지극하게 되므로 훌륭한 문장의 여부는 道가 지극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道가 文에 대해 주도적인 작용을 하므로 道의 작용을 매우 긍정하는 것이다. 그는 三代 秦漢 이래 책을 쓴 선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부분 소실된 원인이 문사만을 중시하고 道를 경시한 데 있다고 보았다. 歐陽修는 楊雄과 王通과 같은 大儒도 道가 충만하지 못한 채 문장을 쓰고 모방에 힘썼기 때문에 후학들이 그 道를 배우지 못하고 문사만을 모방하여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비록 歐陽修가 韓愈를 계승하여 道의 文에 대한 주도적인 작용을 중시하였지만 그의 道와 韓愈의 道는 동일하지 않다. 韓愈의 道는 정통 유가의 道를 道統으로 삼고 고문운동을 주도하고 중앙 집권을 옹호하고 도가와 불가에 반대하는 등 현실적인 정치 의의를 지닌다. 이에 비하면 歐陽修는 ‘道勝’의 설을 주장하여 송초 楊億과 劉筠 등이 주도한 時文의 폐단을 없애려 하였다. 范仲淹의 文道觀은 이상과 같이 기본적으로 한유를 추종하며 歐陽修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范仲淹은 한유와 歐陽修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사회적 폐단을 바로잡고 문학과 정치의 개혁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킨 광범위한 ‘道’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넓은 옷을 입고 관대를 두른 자들이 모두 유가의 도에 뜻을 두고 있다. 하늘이 부여한 바른 성정과 수양을 거쳐 제왕을 보좌하는 특이한 재주로는 《春秋》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무리가 바야흐로 성인의 문을 두드리고 師道를 배풀고 전하며 문사를 잇고 史事를 배열하는 가르침을 계속하며 왕도를 추존하고 패도를 물리치는 경전의 뜻을 통찰하여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태산에 올라 그 높음을 알고 종묘에 들어가 그 훌륭함을 보고 당에 올라 오묘함을 보는데, 거기에 반드시 사람이 있으니, 군자들은 《說春秋》를 폐기하면 안된다. 8)

처사의 작품을 보니 모범적이며 비범하고 깨끗하여 오점이 없다. 뜻은 반드시 순일하고 말은 반드시 진실되다. 즐거우면 그것을 노래하고 근심하면 그것을 회술한다. 헛되이 칭찬함도 없고 구차히 원망함도 없다. 은거하며 뜻을 구하니 여유롭

8) 《范仲淹全集·說春秋序》“今褒博者流，咸志于道。以天命之正性，修王佐之異材，不深《春秋》，吾未信也。……吾輩方扣聖門，宜循師道，碎屬詞比事之教，洞尊王黜霸之經。由此登太山而知高，入宗廟而見美，升堂觀奧，必有人焉，君子哉無廢。”

계 노니는 노래가 많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분하여 한탄하는 작품이 없다.⁹⁾

范仲淹은 기본적으로는 한유와 歐陽修의 '道'를 중시하며 유가적 인의의 '道'를 주장하였지만, '道'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時文을 반대하고 사회 현실과 밀접한 道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상적인 道가 아닌 현실적인 道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의 道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적 개혁으로까지 확대된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

3. 教化와 仁義의 文學觀

范仲淹은 蘇州 吳縣(지금의 江蘇 蘇州) 사람으로 어려서 빈곤하였으나 힘써 학문에 정진하여 祥符 8년(1015) 진사에 급제하였고 천성 7년(1029)에 秘閣 校理를 맡았다. 그는 조정에서 직언하는 데에 과감하였는데, 상소를 올려 劉太后가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였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자 스스로 외직을 청하였다.¹⁰⁾ 그 해 2월 수렴정정을 하던 유태후가 병사하자 대신들의 옹호 하에 24세의 仁宗이 친정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코자 范仲淹 등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歐陽修는 원래 范仲淹과는 교유가 없었는데, 范仲淹이 경사로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아 간관의 중요성을 피력한 서신 <上范司諫書>를 보냈다. 송대에는 간관의 등급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規諫과 諷諭로써 황제에게 직접 진언을 할 수 있었다. 歐陽修는 이 문장을 통해서 간관의 역할을 중시하고 조정의 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한 范仲淹에게 은근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歐陽修는 范

9) 《范仲淹全集·唐異詩序》“觀乎處士之作也，孑然弗倫，洗然無塵。意必以淳，語必以眞。樂則歌之，憂則懷之。無虛美，無苟怨。隱居求志，多優游之詠，天下有道，無憤惋之作。”

10) 釋文瑩《續湘山野錄》“范文正公仲淹爲右司諫，章獻劉太后聽政，忽遣一巨璫諭之曰，今後凡有大號令，不須上勅，三五年爲一宰相，不難至。公覺其言甘，必有所謂。果誕告冬至日大會前殿，仁宗率群臣爲壽。有司將具，公上疏曰，事遂已。”

仲淹을 좇아 적극적으로 조정의 개혁에 앞장섰다. 항상 조정의 모든 일에 范仲淹과 의견을 같이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歐陽修에게 있어서 范仲淹은 당연히 가장 현능하고 훌륭한 전범이었을 것이며 이는 그를 위해 쓴 신도비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¹¹⁾ 평소 자신이 평가해왔던 망자의 전모와 작자 자신이 이상으로 추구하는 인물상을 동일시하여 그려내었다. 사실 이 문장 안에서 유가의 모든 덕목이 총망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줄곧 뜻을 품고 세속의 부귀와 명예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현들의 가르침대로 천하를 도모하는 기개를 지녔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노환으로 고생하면서도 임금의 총애를 듬뿍 받을 정도로 충정을 바쳤으며 그 효성이 지극하였다. 빈곤한 시절에 모친상을 후히 치루지 못한 상심으로 평생 빈객도 받지 않고 음식에 고기를 많이 넣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의 효심에 탄복케 하며 재물을 처자식을 위해 쓰지 않고 백성을 위해 썼다는 애민사상을 칭송하는 등 유가적 덕목을 모두 망라하였다.¹²⁾ 이에 歐陽修는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을 통해 范仲淹을 유가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거의 완벽한 인물로 그려내고 있다. 즉 范仲淹은 歐陽修가 추구하는 유가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인 것이다.

공이 어려서 큰 절개를 품으시니 부귀함과 빈천함, 명예를 잃고 얻음, 기쁘고 슬픔에 있어 그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고 개연히 천하에 뜻을 품었다. 평소

11) 《歐陽修全集·祭資政范公文》“嗚呼公乎! 學古居今, 持方入圓, 丘, 軻之艱, 其道則然, 公曰彼惡, 謂公好訐, 公曰彼善, 謂公樹朋, 公所勇爲, 謂公躁進, 公有退讓, 謂公近名, 讒人之言, 其何可聽! 先事而斥, 群議衆排, 有事而思, 雖仇謂材, 毀不吾傷, 譽譽不吾喜, 進退有儀, 夷行險止, 嗚呼公乎! 舉世之善, 誰非公徒? 讒人豈多, 公志不舒? 善不勝惡, 豈其然乎? 成難毀易, 理又然歟? 嗚呼公乎! 欲壞其棟, 先摧桷榱, 傾巢破殼, 披折傍枝, 害一損百, 人誰不罹? 誰爲黨論, 是不仁哉! 嗚呼公乎! 易名諡行, 君子之榮, 生也何毀, 歿也何稱? 好死惡生, 殆非人情, 豈其生有所嫉, 而死無所爭? 自公云亡, 謗不待辨, 愈久愈明, 由今可見, 始屈終伸, 公其無恨, 寫懷平生, 寓此薄奠.”

12) 《四庫全書總目·文正集》“仲淹人品事業卓絕一時, 本不借文章以傳, 而貫通經術, 明達政體, 凡所論著, 一一皆有本之言, 固非虛飾詞藻者所能, 亦非高談心性者所及, 蘇軾稱其天聖中所上執政萬言書, 天下傳誦, 考其平生所爲, 無出此者, 蓋行求無愧於聖賢, 學求有濟於天下, 古之所謂大儒者, 有體有用, 不過如此, 初不必說太極, 衍先天而後謂之能聞聖道, 亦不必講封建, 議井田而後謂之不愧王佐也.”

에 혼자서 “선비는 마땅히 천하의 걱정을 먼저 걱정하여야 하며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겨워해야 한다.”라고 읊었다. 임금을 모시고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이해관계를 따져보아 나가고 그만두지 않았다. 그가 행한 모든 일은 반드시 그 방법을 다 해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마땅히 옳으나, 그 이루고 이루지 못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성현이라도 반드시 능히 하지는 못할 것인데 내가 어찌 구차히 하겠는가?”라 말하였다.…… 이 때 서하가 이미 신하라 칭하였는데 공이 질병을 이유로 등주로 가기를 청하였다. 등주 태수를 한 지 3년만에 지향주를 구하고 다시 청주로 옮겼다. 공의 병이 더욱 심하여 지영주를 구하고 가마를 어깨에 매어 서주로 갔는데 마침내 일어날 수가 없었다. 향년 64세였다. 공의 병이 심할 때 위에서 약을 하사하시며 안부를 물으셨는데, 돌아가신 다음날에서야 도착했다. 유언으로 남긴 바가 없어 그 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물어 그대로 하였고 병부상서에 증제지셨으니 그 애환함이 심히 두터우셨다.

공이 사람됨이 외유내강하시고 선한 일을 즐기시고 널리 사랑하셨다. 모친상 때 아직 빈곤하여 중신토록 빈객이 아니면 음식에도 고기를 두가지 이상 놓지 않으셨다. 재물이 임해서는 베풀기를 좋아해서 뜻이 트였다. 물러나 그 사생활을 보면 처자는 입고 먹는 것에 겨우 충족한다. 그가 정치하심에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고 초상을 그렸다. 그 행동거지와 일에 힘하는 데 있어서는 산림척사와 마을의 여염집 들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밖으로는 오랑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고 그 일을 즐겨 말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 세차와 관작에 있어서는 묘에 지를 쓰고 가문에 족보를 쓰고 관리에게 소장된 것에 이르러서는 모두 논할 수 없는 정도이다. 천하 국가의 큰 일에 연관된 것이 또한 공의 뜻이다.¹³⁾

이와 같이 훌륭한 유가적 덕목을 소유한 范仲淹은 자신의 사상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인물로서, 유가적 교화와 인의의 문학을 강조하였다. <上資

13) <歐陽修全集·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公少有大節，於富貴貧賤，毀譽歡戚，不一動其心，而慨然有志於天下，常自稱曰，士當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也。其事上遇人，一以自信，不擇利害爲趨舍，其所有爲，必盡其方，曰爲之自我者當如是，其成與否，有不在我者，雖聖賢不能必，吾豈苟哉！……是時，夏人已稱臣，公因以疾請鄧州，守鄧三歲，求知杭州，又徙青州。公益病，又求知潁州，肩輿至徐，遂不起，享年六十有四。方公之病，上賜藥存問，既薨，輟朝一日，以其遺表無所請，使就問其家所欲，贈以兵部尚書，所以哀恤之甚厚。公爲人外和內剛，樂善汎愛，喪其母時尚貧，終身非賓客食不重肉。臨財好施，意豁如也。及退而視其私，妻子僅給衣食。其爲政，所至民多立祠畫像。其行己臨事，自山林處士里閭田野之人，外至夷狄，莫不知其名字，而樂道其事者甚衆。及其世次官爵，誌於墓譜於家藏於有司者，皆不論著。其繫天下家國之大者，亦公之志也歟！”

政晏侍郎書>에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들이 의론하지 않는다고 하니, 대개 도가 있는 조정에 서는 교화가 순익한 즉 서인들이 의론하는 바가 없다고 한다.¹⁴⁾

‘道’는 모든 조정의 정사의 표준척도로서 ‘有道’와 ‘無道’의 차이를 분명히 제시하고 나아가 각자의 인품에 따른 道德文章을 쓰기를 주장하였다.

范仲淹은 六經에 능하고 특히 《易經》에 뛰어나 儒家의 道에 능통하였다.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부단히 정진하는 태도와 스승 戚氏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학문에 매진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것 등 유사한 점이 많은 사제간으로 세간에 칭송이 자자하였다 한다.¹⁵⁾ 范仲淹은 학문의 근간을 忠孝로 삼고 聖人の 책 속에 聖人の 道가 전해지므로 먼저 六經을 배우고 나아가 正史를 익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六經을 익혀야 天人 간을 궁구할 수 있고 古今의 변화에 통달할 수 있다고 하고, 생명력을 지닌 진정한 독서인은 이로써 반드시 성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이를 계승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여 聖人の 道를 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인의 도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생동안 지행합일의 태도를 취하였다.

박식한 선비는 마땅히 육경 안에서 성인의 뜻을 오로지 따라야 한다. …… 성인의 책을 신뢰하고 고인의 행적을 따르며 위로는 인군에게 정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백성에게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¹⁶⁾

范仲淹은 이러한 학문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을 문장을 통해 더욱 상세

14) 《范文正公集·上資政晏侍郎書》“又曰, 天下有道, 庶人不議, 蓋言有道之朝, 教化純被, 則庶人無所議焉.”

15) 《宋元學案·高平學案》“戚同文字同文, 宋之楚邱人, 世爲儒. 幼孤, 祖母攜育於外氏, 奉養以孝聞, 祖母卒, 晝夜京號, 不食數日, 鄉里爲之感動.”

16) 《范文正公集·與歐靜序》“博識之士, 當於六經之中, 專師聖人之意. …… 信聖人之書, 師古人之行, 上誠於君, 下誠於民.”

하게 발현해내었다. 그의 문장 <用天下心爲心賦>, <岳陽樓記>, <重建文正書院記> 등에서 그는 수학자들이 응당 성인을 배워야하고 이를 위해서 자아를 버리는 '무아'의 경계에 달해야 하며 관직에 오르면 백성을 걱정하고 강호에 거하게 되면 그 인군을 걱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를 좇는 것을 수학의 과정으로 보았다.

요와 순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며 道에 함께 몸을 낮추었고, 걸왕과 주왕은 다른 사람을 써서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며 하늘을 스스로 저버렸다. 반드시 안위를 중시해야 하며 사람을 취하는 데 현명하여야 한다. 만물과 내게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오랑캐를 함께 포용할만하여야 합니다. 노자의 말은 깊어서 보기 어려운데 욕심이 없는 자는 道를 제대로 보아 경계 안에 오묘하게 되고, 선생의 문장은 상고하여 헤아려야 하는데 빈 마음으로 남의 말을 듣는 자는 사람을 감동시켜 천하와 화합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변화함 또한 광달하고 그 뜻함 또한 깊어지게 된다. 자기가 하고자하는 것으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써 마음을 행하게 된다.¹⁷⁾

봄날의 화창하고 경치가 선명하며 파도가 일지 않아 상하의 하늘 빛이 한결같이 푸름으로 만경이나 된다. 모래벌의 白鷗들은 날아와 모이고 비단 같은 물고기들은 헤엄치며 강안의 지초와 물가의 난초는 향기롭고 무성하며, 혹은 긴 물안개가 한번 개이고 밝은 달이 천 리를 비춘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빛은 금빛처럼 출렁이고 고요한 달그림자는 구슬이 잠긴듯한데 여가를 서로 화답하니, 이 즐거움이 어찌 다할까. 이러한 때에 이 누대에 오르면 마음이 넓어지고 정신이 화하여 영광과 욕됨을 모두 잊고는 술잔을 잡고 풍광을 임하여 그 기쁨이 양양(洋洋)함이 있을 것이다. 슬프다! 내 일찍이 옛 仁人의 마음을 찾아보니, 혹 이 두 가지의 행위와 다름은 어째서인가? 남의 일로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일로 슬퍼하지 않아, 묘당의 높은 곳에 처하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처하면 군주를 근심하니, 이는 나가도 또한 근심하고 물러나도 또한 근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때에나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반드시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 한 뒤에 즐거워 할 것이다. 아! 이러한 사람이 아니면 내 누구와 더불어 돌아가겠는가?¹⁸⁾

17) 《范文正公集·用天下心爲心賦》“堯舜則舍己從人，同底于道，桀紂則以人從欲，自絕於天。必也重乎安危，明夫用捨，弗凝滯於物我，可并包於夷夏。曠老氏之旨，無欲者觀道妙於域中，稽夫子之文，虛受者感人和於天下。若然，則其化也廣，其旨也深。不以己欲爲欲，而以衆心爲心。”

18) 《范文正公集·岳陽樓記》“至若春和景明，波瀾不驚，上下天光，一碧萬頃，沙鷗翔集，錦鱗游

이러한 儒家의 학술과 儒家의 道, 즉 聖人의 道를 추구하였던 范仲淹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范仲淹은 문장은 반드시 興亡盛衰의 이치를 밝히고 법도와 교화의 윤리를 지녀야하며 귀감과 훈계, 권면과 격려, 교화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품과 도덕, 학문, 문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진실하고 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는 반드시 순정하여야 하며 말은 반드시 진실되어야 하며 즐거우면 그것을 가송하고 근심이 있으면 그것을 위로해야 한다. 헛되이 과장됨이 없어야 하고 구차히 원망함이 없어야 한다. 은거하며 뜻을 구하면 한가롭게 잘 지내며 읊조린 작품이 많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분하고 원망하는 작품이 없다.¹⁹⁾

내가 堯典과 舜歌를 본 이후로 문장의 작품들이 변함과 변함이 없음이 대대로 끝이 없었다. 오로지 말단을 제어하고 근본을 내세우며 鄭聲을 없애고 雅의 노래를 회복시켜 성인의 도를 가까이 두는 것이 어려웠다. 가깝게는 당나라 貞元과 元和 연간에 한되지가 문단의 맹주였고 옛 도가 가장 성하였다. …… 낙양의 운사로서가 어려서 높은 식견이 있어 동년배들이 좇을 수가 없었는데, 穆伯을 따라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힘써 고문을 행했다. 그래서 운사로는 《春秋》에 심취하여 그 문장이 근엄하고 연사가 간약하며 이치에 정통하였다. 아뢰는 문장과 주의 등에서 크게 풍채가 드러나며 선비들의 공경하며 흠모하였다. 歐陽修에게 얻음을 들어 그를 따르며 크게 떨치니, 이 때부터 천하의 문장이 모두 변하여 옛 고문을 행하고 道에 있어서도 깊어진 데 공을 세웠다.²⁰⁾

泳, 岸芷汀蘭, 郁郁青青, 而或長煙一空, 皓月千里, 浮光躍金, 靜影沉璧, 漁歌互答, 此樂何極, 登斯樓也, 則有心曠神怡, 寵辱皆忘, 把酒臨風, 其喜洋洋者矣, 嗟夫! 予嘗求古仁人之心, 或異二者之爲, 何哉? 不以物喜, 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 退亦憂; 然則何時而樂耶? 其必曰,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歟! 噫! 微斯人, 吾誰與歸!”

- 19) 《范文正公集·唐異詩序》“意必以淳, 語必以眞, 樂則歌之, 憂則懷之. 無虛美, 無苟怨. 隱居求志, 多優游之咏, 天下有道, 無憤惋之作.”
- 20) 《范文正公集·尹師魯河南集序》“予觀堯典舜歌而下, 文章之作, 醇醜洪變, 代無窮乎. 惟抑末楊本, 去鄭復雅, 左右聖人之道者難之. 近則唐貞元、元和之間, 韓退之主盟于文, 而古道最盛. 洛陽尹師魯, 少有高識, 不逐時輩, 從穆伯長游, 力爲古文. 而師魯深於《春秋》故其文謹嚴, 辭約而理精, 章奏疏議, 大見風采, 士林方聳慕焉. 遽得歐陽永叔, 從而大振之, 由是天下之文一變而古, 其深有功於道歟!”

이와 같이 范仲淹은 기본적으로 북송 고문운동을 이끈 歐陽修의 문학관과 동일선상에 있었으며, 한유의 고문을 추종하고 간략한 언사와 진실된 道가 담긴 문장을 쓰기를 주장하였다. 이에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진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그 중 주요 인물인 윤사로의 작품을 위해 序文을 써주며 유가적 교화와 인의의 문학을 주장하였다.

范仲淹은 문학의 '宗經', '明道', '致用'의 원칙과 질박함을 숭상하는 풍격을 견지하고 부화한 화려한 문풍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²¹⁾ 그는 문장을 통해 교화에 힘써야하며 사회 기풍이 문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에 주의하고 문장과 사회 현상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唐 韓愈와 柳宗元이 주장한 고문운동을 추종하고 柳開, 穆修, 尹洙, 歐陽修 등의 고문운동을 지지하였다. 그는 주로 華美한 문장의 폐단을 質朴한 문장으로 없애고 질박한 문장의 폐단은 美文으로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지나치게 질박하면 아름답지 않고 지나치게 화려하면 질이 낮아진다고 보았다.²²⁾ 그는 왕우칭과 유개가 고문운동의 서막을 연 이후로 유가적인 도통과 문통이 결합된 '文質彬彬'의 사상을 체현하여 문학의 이론과 창작뿐만 아니라 '文以載道'를 추구하였다. 이는 歐陽修의 고문 이론과 부합하는 것으로, 范仲淹과 歐陽修의 정치적 문학적 교류와 동일선상의 활동을 반증한다. 范仲淹은 이처럼 북송고문가들과 함께 儒道와 文道를 지향하는 문학이론의 주장과 실제적인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 체제에 관한 세밀한 분류가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스무 가지의 문류를 따로 분석하여 그 체제의 형세를 나누었다. 옛사람들의 일을 서술하는 것을 '서사'라 하고, 성인의 덕을 칭송하는 것을 '송덕'이라 하고, 성현의 공훈을 적는 것을 '기공'이라 하고, 나라의 체제를 진술한 것은 '찬서'라 한다. 고인의 뜻을 잇는 것을 '연정'이라 하고, 허무한 이치를 밝히는 것을 '명도'라 하고, 원

21) 《范文正公集·唐異詩序》“其或不知而作，影響前輩，因人之尚，忘己之實。吟咏性情而不顧其分，風賦比興而不觀其時。故有非窮途而悲，非亂世而怨，華車有寒苦之述，白社爲驕奢之語。學步不至，效顰則多。抱《鄭》《衛》之奏，責夔曠之賞，游西北之流，望江海之宗者有矣。”

22) 《范文正公集·奏上時務序》“文弊則救之以質，質弊則救之以文。質弊而不救，則晦而不彰，文弊而不救，則華而將落。”

류를 발휘하는 것을 ‘조술’이라 하고, 가리키는 의미를 파헤치는 것을 ‘논리’라 한다. 그 사물을 가리키며 읊조리는 것을 ‘영물’이라 하고, 그 이치를 서술하여 읊조리는 것을 ‘술영’이라하고, 분류하여 확대할 수 있는 것을 ‘인류’라 한다. 일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것을 ‘지사’라 하고, 세밀한 것을 궁구하는 것을 ‘석미’라 하고, 비유와 상징을 취하는 것을 ‘체물’이라 하고, 명명한 것의 형체를 강화하는 것을 ‘가상’이라 하고, 그 의미를 겸하는 예로 드는 것을 ‘방유’라 하고, 그 일을 서술하여 체화하는 것을 ‘서체’라 한다. 그 수를 총괄하여 서술하는 것을 ‘총수’라 하고 두가지 사물을 함께 밝히는 것을 ‘쌍관’이라하고, 언사에 얽매임이 없는 것을 ‘변태’라 한다.²³⁾

范仲淹은 북송 문장에 정통하였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스무가지에 달하는 문장의 체제 및 형식을 분류하였다. 이는 북송 고문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歐陽修 등의 문장가들이 문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보다 체계적으로 문장을 쓰고 문장의 각 체재와 그 체재와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표현 수법 등을 동원하여 풍부한 효과와 감동을 자아내는 등 문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4. 教育和 人才育成的 강조

范仲淹은 儒家에 기초한 傳道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교화와 인의의 문학을 강조하며 정치와 문학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서 서원의 건립과 교육의 중요성, 인재의 선발과 육성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서원에서 인재를 배양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학당을 일으키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

23) 《范文正公集·賦林衡鑿序》“別析二十門，以分其體勢。叙昔人之事者，謂之敘事，頌聖人之德者，謂之頌德，書聖賢之助者，謂之紀功，陳邦國之體者，謂之贊序，緣古人之意者，謂之緣情，明虛無之理者，謂之明道，發揮源流者，謂之祖述，商榷指義者，謂之論理，指其物而咏者，謂之咏物，述其理而咏者，謂之述咏，類可以廣者，謂之引類，事非有隱者，謂之指事，窮精微者，謂之析畧，取比象者，謂之體物，強名之體者，謂之假象，兼舉其義者，謂之旁喻，叙其事而體者，謂之叙體，總其數而述者，謂之總數，兼明二物者，謂之雙關，詞有不羈，謂之變態。”

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廣德軍, 泰州, 睦州, 蘇州, 饒州, 潤州, 延州, 邠州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학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인재가 부족한 실정을 피력하며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그가 쓴 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라의 근심에 있어 인재가 부족한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인재가 어찌 일찍이 부족하게 되었습니까? 천지의 령이 순수하고 만물을 서술하면서 옛날에 순일하였는데 지금 흐려진 게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만물 가운데 같은 류에서 빼어난 것은 일찍이 옛것보다 부족하지 않으니 어찌 사람 가운데 빼어나 현명한 자가 유독 옛날부터 그러하였겠습니까? 진실로 가르침에 아직 격식이 없고, 인재를 아직 취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²⁴⁾

국가의 대사에 있어 인재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하고 그러한 우수한 인재를 교육시켜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范仲淹은 胡瑗과 같은 大師를 초빙하여 학관으로 천거하여 교학에 힘써 문하의 훌륭한 제자들을 배양하였다. 그 결과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교육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과거시험을 인재를 발탁하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론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다음의 문장 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范仲淹은 자신의 모교인 應天書院을 위한 題名記에서 서원의 창건 역사와 훌륭한 학풍, 우수한 인재의 육성 등의 공적을 서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유가적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송 황조가 천하를 물리치고 태평함을 세우니 그 공은 일월만큼 다하고 은택이 황화와 한수에 이르고 금록이 쌓이고 현송이 펼쳐지네. 이에 저양선생 증예부시랑 척동문이 구원에서 발분하여 교육을 즐거움으로 삼았네. 문하의 제자유문이 나아가 관직에 나가니 자고로 병부시랑허양이 여러 사람을 거느렸다. 선생의 뒤를 이

24) 《范文正公集·邠州建學記》「國家之患，莫大於乏人。人曷嘗而乏哉？天地靈粹，賦于萬物，非昔醇而今漓，吾觀物有秀於類者，曾不減於古，豈人之秀而賢者，獨下於古歟！誠教有所未格，器有所未就而然耶！」

어 고도관랑중유, 추밀직학사륜이 있었다. 모두 문장이 순일하고 호학하여 그 훌륭함으로 세상을 구하고 맑은 덕과 소박한 행동으로 귀하면서도 빈한함에 능할 수 있었다.

상부 중에 향인 조씨가 금 삼백만양을 청하여 선생의 초려에 학당을 세웠다. 학사의 아들 이 전중승순빈을 천거할 때 개인 정원에 있으면서 비루한 처지에도 느긋하고 옛날 태원에서 상박사독을 천거할 때 현명함과 선량함을 추천하여 처음으로 가르침을 담당하게 되었다.²⁵⁾

호방하고 웅장한 어세로 范仲淹 자신이 가진 교육과 치학의 사상을 반영하고 응천서원의 교육을 전범으로 삼아 복송의 교육 사업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교화와 인의의 문장을 주장한 유학의 부흥은 신유학의 탄생과 발전을 초래하였고 그것의 진원지는 睢陽書院이었다. 그는 관학과 사학의 합치와 평민 교육의 보급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이론 근거를 다음의 문장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上時相議制學書>에서 그는 교육개혁사상과 교육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학교가 피폐해지고 師道가 오래도록 사라지고 학문하는 자들이 경전과 전적에 근간을 두지 않고 정치를 따르는 자들이 교화에 관한 것을 의론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장은 유미하고 풍속은 거짓되고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할 때에는 항상 才難(?)을 근심합니다. ……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들은 인재의 육성보다 시급한 것이 없고 인재 육성의 방법에는 권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권학의 요체는 經書 중주로 삼는 것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경서를 중주로 하면 그 도가 크게 되고, 그 도가 크면 재주가 훌륭하게 되고, 재주가 훌륭하면 공이 크게 됩니다. …… 육경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으로 정사를 익히고 方略을 익혀야 하며 時務를 정비하여 천하의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크게 떨쳐 경제의 업을 닦고 교화를 마음에 두고 성인의 문화를 좇아 왕좌의 쓰임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²⁶⁾

25) 《范文正公集·南京書院題名記》“皇宋開天下，建太平，功揭日月，澤注河漢，金革塵積，絃誦風布。乃有睢陽先生贈禮部侍郎戚公文，以責于丘園，教育爲樂。門弟子由文行而進者，自故兵部侍郎許公驥而下凡若干人。先生之嗣故都官郎中維、樞密直學士綸，並純文浩學，世濟其美，清德素行，貴而能貧。祥符中，鄉人曹氏，請以金三百萬建學于先生之廬，學士之子殿中丞舜賓時在私庭，俾幹其裕，故太原奉常博士瀆時舉賢良，始掌其教。”

26) 《范文正公集·上時相議制學書》“文岸不振，師道扣缺，爲學者不根乎經籍，從政者罕議乎教化，故文章柔靡，風俗巧僞，選用之際，常患才難。……夫善國者，莫先育才，育才之方，莫先勸

范仲淹은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으로 학문을 흥성하게 하는 활동들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임지의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책적으로는 교육의 개혁을 경력신정의 주요내용으로 삼아 州縣의 학문을 세우는 일을 중시하였다. 그는 각 지역에 학교를 세워 ‘文教’를 내세우는 송 왕조의 행정명령 방식으로써 작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²⁷⁾ 그리고 북송의 경제 및 정치 발전이 이를 뒷받침하여 문화와 교육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북송 초기 학교가 대거 세워지고 그에 따라 그의 교육사상 또한 이론의 기초를 닦게 되었는데, 교육의 목적, 내용, 교사의 선발, 교육의 원칙, 방법, 교학, 인재배양의 목표, 도덕 수양, 교재의 안배, 고시제도 등의 방면에서 초기 이론의 형태가 나오게 되었다. 그는 먼저, 文도가 쇠하고 師도가 어그러져 학자들이 經典에 바탕을 두지 않고 위정자들이 教化를 의론하지 않는 까닭에 문장이 쇠미하고 풍속이 어긋나고 인재 선발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그는 <上時相議制舉書>의 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교육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무릇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고 인재를 육성할 방법으로는 勸學보다 우선한 것이 없다. 勸學의 핵심으로는 宗經을 숭상하는 것 만한 게 없다. 經典을 중주로 하면 道가 크고 道가 크면 인재가 훌륭하고, 인재가 훌륭하면 공이 크게 된다.²⁸⁾

그는 교육의 목적은 덕과 재주를 겸비한 인재의 배양하여 經世致用하는 데 있다고 여기고 인재 배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宗經’이라고 하였다. 즉 육경을 인격 도야와 재능육성의 표준으로 삼고 제자서와 역사서들을 그 다음으

學, 勸學之要, 莫尚宗經. 宗經則道大, 道大則才大, 才大則功大.…… 先之以六經, 次之以正史, 該之以方略, 濟之以時務, 使天下賢俊, 翕然修經濟之業, 以教化爲心, 趨聖人之門, 成王佐之器.”

27) 《歐陽修全集·吉州學記》“海隅徼塞, 四海方萬里之外, 莫不皆有學”

28) 《范文正公集·上時相議制舉書》“夫善國者, 莫先育才, 育才之方, 莫先勸學, 勸學之要, 莫尚宗經. 宗經則道大, 道大則才大, 才大則功大.”

로 익혀야 할 것으로 두었다.

경력신정 때 그는 정치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관건은 인재의 등용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존의 인재 등용 제도를 개혁하여 진정한 인재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개혁적인 제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范仲淹의 이러한 정치 이론은 歐陽修를 비롯한 교유 인물들의 주장과 동일선 상에 있다. 북송 중기에 신흥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군주가 신하를 신뢰하고 집행권을 부여하길 요구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36년 范仲淹이 ‘四論’을 제기한 바 있다.²⁹⁾ 그는 현능한 인재를 선발 등용할 것과 구체적인 선발 기준 및 방법 등을 논하고 등용된 인재들이 지녀야 할 덕목, 기량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 중 ‘推委臣下論’³⁰⁾ 范仲淹의 이러한 주장을 대표한다.³¹⁾

왕이 된 자는 장차 그 권력을 거두어 받드시 먼저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우나 어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공자가 문하의 사람들을 분간할 때 네 가지 과목을 표준으로 삼았는데, 첫째는 덕행이요, 둘째는 정사이며, 셋째는 언어이고, 넷째는 문학이다.³²⁾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 대중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견해, 간언을 거절하는

29) 李燾《續資治通鑑長編·卷一一八》“帝嘗以遷道事訪諸夷簡。夷簡曰，仲淹迂闊，務名無實。仲淹聞之，爲四論以獻，一曰帝王好尚，二曰選賢任能，三曰近名，四曰推委，大抵譏指時政。又言，漢成帝信張禹，不疑舅家，故終有王莽之亂。臣恐今日朝廷亦有張禹壞陛下家法，以大爲小，以易爲難，以未成爲已成，以急務爲閑務者，不可不早辨也。夷簡大怒，以仲淹語辨于帝前，且訴仲淹越職言事，薦引朋黨，離間君臣。仲淹亦交章對訴，辭愈切。由是降黜。侍御史韓瀆希夷簡意，請以仲淹朋黨榜朝堂，戒百官越職言事，從之。”

30) 陳邦瞻《宋史紀事本末·卷二十九》“他日論建都之事，仲淹進曰，洛陽險固，而汴爲四戰之地，太平宜居汴，卽有事必居洛陽，當漸廣儲蓄，繕宮室。帝以問夷簡，夷簡對曰，仲淹迂闊，務名無實。仲淹聞之，乃爲四論以獻，一曰《帝王好尚》，二曰《選賢任能》，三曰《近名》，四曰《推委》，大抵譏切時政。”

31) 이후 王安石도 인재의 필요와 독단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의 글을 仁宗에게 올린 바 있는데, 《王臨川集·卷三十九·上仁宗皇帝言事書》에서 “任之也又專……而使之得行其意。”라고 하였다.

32) 《范文正公集·推委臣下論》“王者將收其權，必先采人。采人爲難，豈無其要？孔子之辨門人，標以四科，一曰德行，二曰政事，三曰言語，四曰文學。”

등의 중론의 외면, 편벽된 믿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며 縱橫家와 신진사대부들의 용기와 예리함이 반드시 다 들어맞지는 않으므로 가장 실제적이어야 하고 동료와 일반 사람들의 동조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래야만 영이 내려도 백성들이 잘 따르고 일이 행해지며 온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모두 편안할 수 있음에 주의하였다.³³⁾

이외에도 范仲淹은 <任官唯賢材賦>에서 자신의 인재관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큰 인제는 도를 논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제왕이 주는 계략이 진실로 드러나며 작은 인제는 힘을 다해 관작의 열에 나아가는데 가식의 탄식이 들리지 않는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백성에게 근심을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얻으면 인군의 찬사를 얻는다.…… 대개 현재가 아니면 다스리지 아니하니 현사를 얻으면 번성하게 된다. 재주를 헤아린 후에 등용하고 그 정치를 맡겨 반드시 담담하게 한다. 위로는 知人の 道³⁴⁾를 보고 아래로는 稱職의 방법을 보아야 한다.

范仲淹은 서원제도를 창건하고 관학과 사학을 합류시켰으며 중앙과 지방 학교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서민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켜 교육의 보급화에 힘썼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배양된 인재들을 과거 제도를 통해 대거 등용함으로써 송대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교육 사상은 그가 남긴 많은 문장들 가운데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현실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33) <范文正公集·推委臣下論>“其深於正道，有憂天下之心，可備輔相者記之。其精於經術，通聖人之旨，可備顧問者記之。其敢言正色，有端士之操，可備諫諍者記之。其能言方略，有烈士之風，可備將帥者記之。如斯之人，精而求之，熟而觀之，然後實清要之職，授雄劇之任，使人人竭力，爭爲腹心。……若留意逸豫，不孜孜於求賢，親選之時，無賢可用，則進退賞罰復歸於下，雖有爵祿，不足爲上之恩，雖有誅罰，不足爲上之威矣。”

34) <范文正公集·任官唯賢材賦>“大則論道經邦，帝賚之猷允著，小則陳力就列，家食之歎無聞。……非其人則貽民之憂，得其人則致君之美。……蓋以非賢不乂，得士則昌，度其才而後用，授其政而必當。”

5. 結論

范仲淹은 儒家에서 지향하는 文道觀을 지닌 북송의 정치와 문학의 주요 개혁 인물이다. 그는 정치, 군사, 교육 등의 실질적인 방면에서 혁신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동시에 문학적으로는 歐陽修를 비롯한 북송고문운동을 주도한 문단의 인물들과 함께 時文을 반대하고 古文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문학사상은 范仲淹의 정치개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의 문학 개혁사상과 정치개혁사상은 실제 작품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는 賦, 表, 奏, 帖, 尺牘, 序, 記, 論, 贊, 書, 頌, 碑銘, 墓誌, 墓表, 祭文 등의 公文, 應酬文, 學術文을 통해 유가적 民本思想과 仁政에 기반한 문학과 정치에의 개혁의지를 표명하였다. 자신의 산문 작품을 통해서 유가적 문학과 교육의 중요성, 인재육성 방안 등을 유려한 필치로 서술해내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당시의 정치 상황과 연관되어 고금의 현상을 논하고 웅장하며 완벽한 논리성을 갖춘 문장이다. 이에 서사가 명쾌하고 소박하고 심원한 감정을 지니는 동시에 치밀함과 간략함이 적절히 안배되어 范仲淹의 사상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내고 있다.

范仲淹은 북송 고문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자신의 정치적·문학적 개혁의지를 담아내는 동시에 다양한 체제의 활용과 '文'과 '道'에 관한 문학론 등을 주장하는 등 산문의 내용과 형식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古文의 간략함, 수사적 아름다움, 형식미 추구 등의 미학적 가치와 정치, 학문, 군사, 교육 등의 개혁과 관련된 사료적 가치를 겸비한 范仲淹의 산문은 북송 고문운동과 그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정치와 문학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북송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이해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范仲淹 古文의 문학적성과 고문운동에의 기여도를 연구한다면 북송 고문의 문학적 의의를 심도있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孫昌武, 《唐代古文運動通論》, 百花文藝出版社, 1984.
 杜維沫 陳新選注, 《歐陽修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86.
 歐陽永叔, 《歐陽修全集》, 中國書店, 1992.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宋代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6.
 佐藤一郎, 《中國文章論》, 上海古籍出版社, 1996.
 王水照, 《宋代文學通論》, 河南大學出版社, 1997.
 高海夫, 《唐宋八大家文抄校注集評》, 三秦出版社, 1998.
 蕭公權著, 최명·소문호 공역, 《중국정치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8.
 宋代史研究會, 《宋代人の認識》, 汲古書院, 2001.
 王瑞來, 《宋代の皇帝權力と士大夫政治》, 汲古書院, 2001.
 李勇先, 王蓉貴 交點, 《范仲淹全集》, 四川大學出版社, 2007.
 方健, 《范仲淹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7.

< 中文提要 >

范仲淹, 北宋的政治家、軍事家和文學家。范仲淹是北宋詩文革新運動的先驅。他意識到宋初數十年來文章柔靡、風俗巧偽的危害, 強調繼承歷史上進步的文學傳統, 并推荐当代能堅持風雅比興傳統的好作品, 自己的文章也代表着文學創作中的進步方向。他的散文旨在闡明改革政治、文學的方面意志, 主張民爲邦本的教化、仁義文學觀, 強調教育和人材育成。范仲淹和北宋古文運動家一起提唱古文運動, 他們的文學和政治的改革思想一致, 通過互相的交遊創作了多樣體裁的散文, 表現了以儒家爲本的散文精神, 實踐了北宋古文運動理論, 對於北宋古文運動的影響很深。

關鍵詞：范仲淹, 散文精神, 政治, 文學, 教化, 仁義, 書院, 教育, 人材育成, 北宋古文運動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6.30	2010.7.30	2010.8.7	2010.8.10	2010.8.31